

SeAn Magazine.



FIRST CABIN
INTERNATIONAL
SEOUL MYEONGDONG

세안그림 정기발행 매거진 Vol.22

..SEAN..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매거진
2026년 여름 (Summer)

Contents

01 새로운 호스피탈리티 패러다임의 서막, '퍼스트캐빈 서울명동'	Page 4
02 제주, 연대의 길을 찾다.	Page 7
03 호텔, 할인 받고 예약하자	Page 19
04 세안그룹 소식	Page 21
05 문화 소식	Page 24





새로운 호스피탈리티 패러다임의 서막, ‘퍼스트캐빈 서울명동’ 프리오픈 파티 성료

: 세안호텔그룹·삼구아이앤씨·퍼스트캐빈 일본 본사의 글로벌 연대,
한·일 인플루언서 극찬 속 성공적 첫발

오는 7월 정식 상륙, 대한민국 관광 중심지 명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예고하다. 대한민국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서울 명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퍼스트캐빈 서울명동’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프리오픈 축하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퍼스트캐빈의 성공적인 한국 상륙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온 세안호텔그룹과 삼구아이앤씨, 그리고 퍼스트캐빈 일본 본사가 공동으로 기획·준비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의 견고함을 증명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테이프 커팅식에는 본 프로젝트의 핵심 부동산 자산 관리 및 금융 파트너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와 이지스자산운용이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과 국내 리딩 자산운용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퍼스트캐빈 서울명동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명동 상권의 지형도를 바꿀 새로운 비즈니스 랜드마크이자 혁신적인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업계에 공표한 순간이었다. 참석한 금융 및 자산 전문가들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프리미엄 컴팩트 호텔로서의 성공 가능성에 확신을 더하며 아낌없는 축하를 건넸다.

비행기 퍼스트클래스의 품격을 지상에 재현하다: 퍼스트캐빈의 혁신적 공간 미학

최근 밀레니얼 세대와 글로벌 독립 여행객(FIT)들 사이에서 '캡슐호텔'이 단순한 저가 숙박이 아닌 하나의 트렌디한 문화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퍼스트캐빈 서울명동은 기존 캡슐호텔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총 148개 객실 규모로 구성된 이 공간은 비행기의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이코노미클래스'에서 착안한 독창적인 캡슐 객실 시스템을 자랑한다. 컴팩트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체공학적인 레이아웃을 적용해 투숙객에게 개방감과 아늑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프리오픈 파티에는 퍼스트캐빈의 한국 첫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탑 인플루언서와 미디어 관계자들이 대거 방문하여 독보적인 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세련된 캡슐 객실과 감각적으로 조성된 최고급 라운지, 그리고 투숙객의 피로를 풀어줄 특별한 웰니스 스페이스를 경험한 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글로벌 여행객들의 동선을 정밀하게 고려한 내부 레이아웃과 감도 높은 인테리어, 직관적인 다국어 시스템은 트렌디한 공간 디자인에 민감한 한·일 크리에이터들을 완벽히 매료시켰으며, 행사 직후 이들의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수많은 호평과 축하 메시지가 확산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글로벌 호스피탈리티의 완성, 세안호텔그룹의 안정적이고 독보적인 운영 역량

퍼스트캐빈 서울명동이 이처럼 프리오픈 단계에서부터 폭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배경에는 총괄 운영을 맡은 세안호텔그룹의 검증된 전문성이 자리하고 있다. 단순히 브랜드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세안호텔그룹은 퍼스트캐빈 일본 본사의 오리지널 매뉴얼을 국내 법적 규제와 정서에 맞추어 완벽하게 현지화하는 마스터키 역할을 수행했다. 148개 객실의 자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밀한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국어 서비스가 필수적인 명동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인재들을 전면 배치했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방재 및 클리닝 매뉴얼을 확립함으로써, 프리미엄 캡슐호텔이 갖춰야 할 '안정성과 신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완성해 냈다. 전문 운영사로서 세안호텔그룹의 차별화된 기획력과 실행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면서, 국내 호텔 업계와 자산 금융 시장은 세안의 향후 행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드웨어의 혁신에 세안호텔그룹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더해짐으로써 퍼스트캐빈은 한국 상륙과 동시에 시장을 선도할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오는 7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막바지 세부 조율과 서비스 트레이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퍼스트캐빈 서울명동. 한국 호스피탈리티 시장에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스탠다드를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그 찬란한 여정을 기대해 본다.



**FIRST CABIN
INTERNATIONAL
SEOUL MYEONGDONG**



Feature :

JEJU Heritage

제주, 상처 위에 피어난 상생의 꽃 :

역사를 당당히 마주하며 연대의 길을 묻다

우리는 왜 지금, 제주의 오래된 기억을 마주해야 하는가

현대 사회는 눈부시게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파편화되어 있다. 타인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선을 긋고, 이념과 취향의 차이로 반목하며, 고립을 자처한다. 대립과 분열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화합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안매거진은 올여름, 제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이국적인 야자수,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제주의 진짜 이야기.

가장 잔혹한 분열의 비극을 겪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상생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난 제주의 유산을 마주해본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역사의 비극 속에서 인간 존엄과 연대의 숨결을 따라가는 심리적 치유의 여정이다.



역사를 인지하는 용기

=

치유의 시작

제주 4·3 사건은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으로 포장된 인간의 이기심이 낳은 현대사의 거대한 비극이다. 광복 직후 미군정 시기, 제주도에 배치된 친일 출신 경찰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행사 중 경찰의 발포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분노한 도민들은 총파업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치안에 위협을 느낀 미군정은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극우 성향의 '서북청년단'을 파견했고, 갈등의 골은 건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결국 이러한 대립 속에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촉발되었다. 이후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과 무력 충돌 과정에서 힘없는 도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강압적으로 잃어버려야 했고,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사살당하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잔인한 상황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다.

이토록 끔찍한 비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3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알려지기는커녕 숨겨지기 바빴다. 너무나 거대하고 깊은 슬픔이었기에, 살아남은 피해자들 역시 그 참혹한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올바르게 배워나가야 한다. 다행히 최근 4·3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 미술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과거를 명확히 인지할 때, 현재의 분열을 치유할 힘이 생겨난다.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출발점이다.

첫알오름 : 백조일손(百祖一孫), 혈연을 넘어선 연대

1950년 250여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첫알오름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 이후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132구의 유해는 신원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고 뒤엉켜 있었다. 유가족들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132구의 유해를 같은 시간 같은 곳에 합동 안장한 뒤, "조상은 각기 다른 132명이지만, 한날한시에 함께 죽어 뼈가 엉기었으니 후손들 모두가 한 자손이 된다"는 가슴 아픈 의미를 담아 묘역을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는 잔인한 이념의 칼날 아래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제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연대의 꽃이다. 내 핏줄, 내 이익만을 챙기며 타인을 쉽게 배척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들의 화합은 묵직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거대한 희망을 건넨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상생의 씨앗을 뿌렸던 이들의 의지는, 우리 역시 극단의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만든다.

묘역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첫알오름 인근).



송 오름 (송악산) 북쪽에 알 오름 세 개가 동서로 뻗어 있다. 송 오름의 알 오름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동쪽 것을 동알 오름이라 하고, 서쪽 것을 서알오름이라 하고, 가운데 것을 셋알 오름이라 한다.
 서알오름 꼭대기에는 일제 강점기에 설치한 고사포 진지가 있고, 그 남쪽 기슭에는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학살터가 있다.
 서알오름 서쪽에는 일제 강점기에 이용했던 비행장터가 있고, 일제가 파서 이용했던 벙커(bunker)가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과 관광객이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자주 찾는 곳 중 하나이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정방폭포와 이중섭 거리 : 비극 속에서도 잃지 않은 '우리'라는 울타리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 폭포인 서귀포 정방폭포.
이 수려한 절경의 이면에는 4·3 당시 수백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절벽 아래로 밀려 떨어져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였던 남부 지역 최대의 학살터라는 잔혹한 비극이 숨어 있다. 이념이라는 이기심이 인간을 어디까지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증언하는 서글픈 공간이다.

그러나 이 참혹한 충성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1년, 폭포 바로 옆 언덕에 자리 잡은 화가 이중섭의 단 세 평짜리 방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피어났다. 4·3의 아픈 상처와 6·25 전쟁의 고통이 겹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이웃과 가난한 밥상을 나누고 가족을 향한 사랑을 화폭에 담아냈다.

정방폭포가 이념의 이기심이 낳은 '분열의 극치'를 보여준다면, 이중섭의 거리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을 구원하고 연대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거창한 구호가 아닌 '내 곁의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랑'임을 증언한다.



터진목과 해녀 공동체 : 터진목의 파도 위로 돌아난 생명의 화음

성산일출봉으로 향하는 길목인 터진목.

사방이 터져 있어 도망갈 곳 없던 그 바다는 4·3 당시 수많은 도민이 목숨을 잃은 학살터였다. 그러나 이 공포의 바다를 평생의 터전 삼아 거친 파도에 맞서온 이들이 있다. 바로 제주의 어머니이자 위대한 생명력의 상징인 '제주 해녀'들이다. 해녀들은 바다라는 척박하고 위험한 현실 속에서 결코 홀로 욕심내지 않는다. 자신의 숨통만큼만 머물며 동료의 호흡과 안전을 본능적으로 챙기는 해녀들의 '물질'은 이기주의를 넘어선 완벽한 연대의 표상이다. 제주 사람들은 고되고 억척스러운 삶을 버텨낸 서로를 향해 고맙다는 뜻으로 "꼭씩 속았수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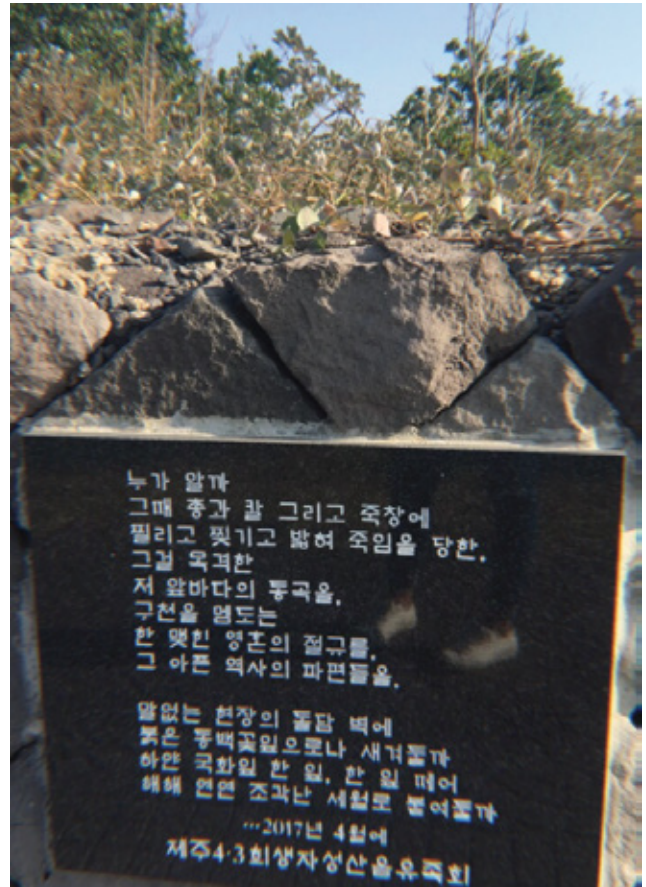
4·3의 비극적인 현실과 모진 세파 앞에서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삶을 지켜내었다.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해녀들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는,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인과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묵직한 지혜를 가르쳐준다.

과거의 아픔을 품은 동쪽 바다는 이제 해녀들의 강인한 숨비소리를 통해 절망을 이겨낸 위대한 화합의 장소로 재탄생한다.



‘터진목’이란 지명은 터진 길목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실제 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산일출봉이 있는 성산리는 물때에 따라 육지길이 열리고 닫혔었다. 이후 주민과 행정당국이 공사를 벌여 육지와 완전히 이어지게 됐는데 지금도 이 일대를 ‘터진목’이라 한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당시와 큰 변화는 없고 학살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성산일출봉의 위용을 남동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어서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다. 2010년 11월 5일 성산을 4·3 희생자 유족회 주최로 추모위령제를 지내고 ‘제주 4·3 성산읍희생자위령비’를 세웠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관덕정 광장 : 대립의 광장에서 상생의 문화로

4·3의 도화선이 되었던 갈등과 대립의 중심지, 관덕정 광장.

거친 피바람이 몰아쳤던 그 비극의 땅은 이제 도민과 여행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제주의 가장 활기찬 문화 광장으로 변모했다. 과거의 아픔을 억지로 지우거나 슬픔에 주저앉는 대신, 끈질기게 버텨내어 찬란한 문화의 장으로 일궈낸 제주 사람들의 강인한 숨결이 광장 가득 흐른다. 화합의 꽃을 피워낸 이 공간은, 과거의 상처를 현대의 빛으로 포용하고 화해하는 제주의 위대한 상생 정신을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상징이다. 역사를 당당히 마주하는 배움 속에서, 우리는 분열을 이겨낸 제주의 위대한 저력을 배운다.



제주와 붉은 동백

오늘날 제주 4·3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이 된 동백꽃.

이 깊은 연결고리는 1992년 제주 출신 강요배 화백이 발표한 역사화 연작 <동백꽃 지다>에서 처음 비롯되었다. 동백꽃은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붉게 피어나지만, 질 때는 꽃잎이 흩날리지 않고 송이째 뚝뚝 떨어지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강 화백은 백설(白雪)의 땅 위로 붉은 동백꽃 송이가 통째로 추락하는 모습에서, 차가운 들녘과 바닷가에서 이념의 총탄에 맞아 소리 없이 쓰러져 간 무고한 도민들의 참혹한 희생을 직관적으로 연상해 냈다.

목이 부러지듯 땅으로 떨어진 붉은 꽃송이들은 거대한 비극의 형상화이자,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있던 희생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고요한 외침이다.

차가운 대지 위로 번지던 슬픔의 잔해는 이제 우리에게 과거를 잊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건넨다. 가장 추운 계절에 피어나 끝내 상생의 씨앗이 된 동백의 붉은 숨결은, 이번 여름 제주의 길을 걷는 모든 여행자의 마음속에 깊은 위로와 단단한 희망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상처 위에 피어날 우리들의 날개를 위하여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출발해 제주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른 이번 여정은 단순한 휴양 그 이상이다.
제주가 건네는 치유의 여정은 상처를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당당히 마주하고 그 위에 피어난 연대의 꽃을 보며 위로를 얻는 과정이다.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끝내 서로의 손을 잡았던 제주처럼, 당당한 마주함과 배움을 통해 세안매거진을 읽는 모든 여행자의 마음에 미래로 비상할 튼튼한 날개가 돌아나기를 기대한다.

宿 머뭍의 미학

6

제주 그레이스 호텔

실용적이고 편안한 공간에서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고 내면의 평화를 채워가며,
고립된 개인들이 다시 연대하고 화합할 수 있는 느긋한 여유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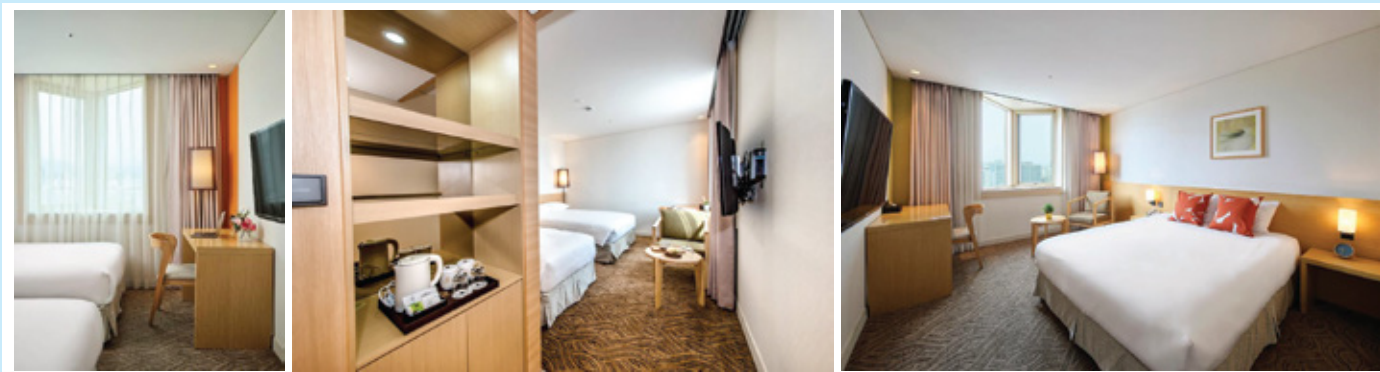
제주 디아일랜드 블루 호텔

서귀포의 고즈넉한 예술적 정취 중심에 위치한 디아일랜드 블루는 이중섭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이라는 완벽한 울타리'를 공간으로 재현한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한여름 밤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넓고 아늑한 객실에서 화합의 온기가 공간 가득 따뜻하게 피어오른다. 현재를 치유하는 진짜 여행이 이 아늑한 안식처에서 완성된다.

더 베스트 제주 성산 호텔

동부 여정의 베이스캠프인 더 베스트 제주 성산은 비극을 이겨낸 제주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거점이다. 객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성산일출봉의 장엄한 풍경과 새벽 바다를 수놓는 빛나는 물결은,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나 어김없이 솟아오르는 새로운 희망과 상생의 에너지를 여행자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한다. 과거를 바르게 인지하고 제주의 위대한 숨결을 배운 여행자는, 이 찬란한 일출 앞에서 마침내 일상을 지탱할 단단한 위로와 심리적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

제주의 가장 현대적인 중심지에서 과거의 역사적 신화와 현재의 시티 라이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광장이 전하는 강인한 역사적 성찰의 묵직함과 세련된 현대적 휴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여행자는 일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이곳에서 비로소 온전한 마음의 결속을 이룬다.

호텔 고민 끝. 여행 시작.

세안호텔그룹

서울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호텔 아트리움 서울 종로
강남 아르누보씨티 호텔
퍼스트캐빈 서울 명동 호텔 (7월 오픈예정)

인천

스파앳홈 사우나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북

전주 풍남관광호텔

제주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제주 디아일랜드블루 호텔
제주 그레이스 호텔

경남

거제 리인스테이 호텔
고성군 유스호스텔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10월 오픈 예정)



선착순 100매

쿠폰 사용방법

(1) 사용처 :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

(2) 사용기간 : ~ 2026년 10월 31일까지

(3) 사용가능호텔 :

강남아르누보씨티호텔,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호텔아트리움서울종로, 거제리인스테이호텔, 고성군유스호텔, 제주센트럴시티호텔, 제주디아일랜드블루호텔, 제주그레이스호텔,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전주 풍남관광호텔, 퍼스트캐빈서울명동

(4) 사용방법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쿠폰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등록해주세요

www.seanhotelgroup.com 접속 > 회원가입 > 마이호텔 > 나의쿠폰 > 쿠폰등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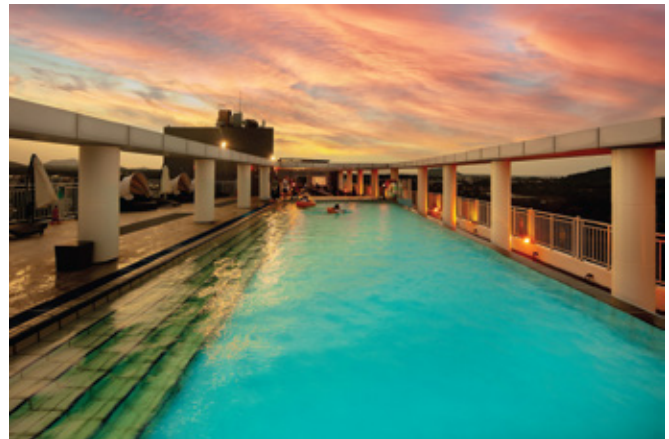
- 선착순 100매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 아이디당 해당 쿠폰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취소 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객실금액에서 할인되며, 추가금액 (옵션선택)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안그룹 소식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루프탑 수영장 오픈 기념 ‘SNS 후기 이벤트’ 진행

푸른 제주 하늘 아래서 즐기는 휴식… 참여 고객에게 제주 과일주스 증정



세안호텔그룹이 운영하는 ‘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이 아름다운 성산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루프탑 수영장을 여름을 맞이하여 오픈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투숙객 대상의 특별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루프탑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수영장 운영 종료일까지 상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푸른 제주 하늘을 배경으로 수영장에서 찍은 인증샷과 호텔 이용 후기를 개인 SNS(인스타그램 등)에 필수 해시태그(#더베스트제주성산호텔, #더베스트제주성산) 및 공식 계정 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 고객에게는 루프탑 현장 확인 즉시 청귤, 한라봉, 레드향 중 랜덤으로 구성된 ‘상큼한 제주 과일주스 1병’을 증정한다. 옅어름 성산일출봉의 찬란한 역사를 품은 루프탑 수영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제주의 싱그러움을 담은 음료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기를 권한다.

세안호텔그룹 특별 프로모션

SUMMER SPECIAL EVENT

더베스트제주성산 호텔 | 제주 인기 액티비티 특별 할인

더베스트제주성산에서는 투숙객들의 풍성한 여정을 위해 제주의 대표 액티비티를 특별 할인가로 제공한다. 할인 대상 상품은 제주 라프 질라인 및 화산송이 풋테라피, 아쿠아플라넷 제주, 스누피가든, 빛의 벙커, 성산 스쿠버, 카멜리아힐 등이다. 세안호텔그룹 공식 홈페이지에서 객실 예약 시 옵션 및 패키지로 함께 구매하거나,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동일한 할인가로 간편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COUPON

제주 디아일랜드블루 호텔 | 로컬 드립백 커피 패키지

제주 여행의 아침을 향긋하게 깨우는 서귀포 로컬 카페 '류지커피로스터스'의 스페셜 드립백 패키지다. 본 패키지는 객실 1박과 함께 정성스레 준비된 커피 드립백 및 이용 가이드가 동봉된다. 더블, 디럭스, 더블 오션, 트윈 오션 객실형은 1박당 드립백 2개가 제공되며, 프리미엄과 로얄 객실형은 1박당 3개가 제공된다. 원두는 랜덤으로 매일 다르게 제공되어 설레는 여정의 묘미를 더한다.

COUPON

제주 그레이스 호텔 | 코데인 커피 드립백 패키지

제주의 푸른 정취 속에서 깊은 휴식을 선사하는 그레이스 호텔이 '코데인 커피로스터스 서귀포점'과 함께 스페셜티 드립백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투숙과 함께 체크인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1박당 2개씩의 고급 드립백이 제공된다. 연박 투숙 시에는 박수에 비례하여 제공(2박 시 4개 제공)되므로, 머무는 내내 고품격 커피와 함께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COUPON

라마다 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 서울시티투어 패키지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호젓한 고궁을 따라 서울 도심을 탐방하는 패키지다. 다채로운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숙 기간 동안 기준 인원수만큼 정갈한 조식이 매일 제공된다. 더불어 서울의 핵심 명소를 순회하는 '도심고궁남산코스' 서울시티투어버스 티켓이 체크인 시 투숙 기준 인원만큼 1회 제공된다.

COUPON

강남 아르누보시티 호텔 | 공식 홈페이지 예약 특전 커피 쿠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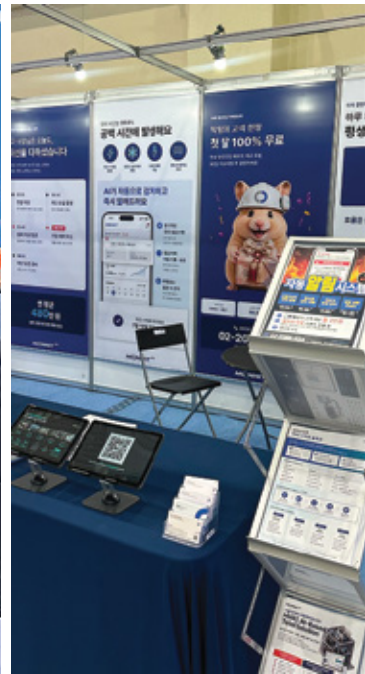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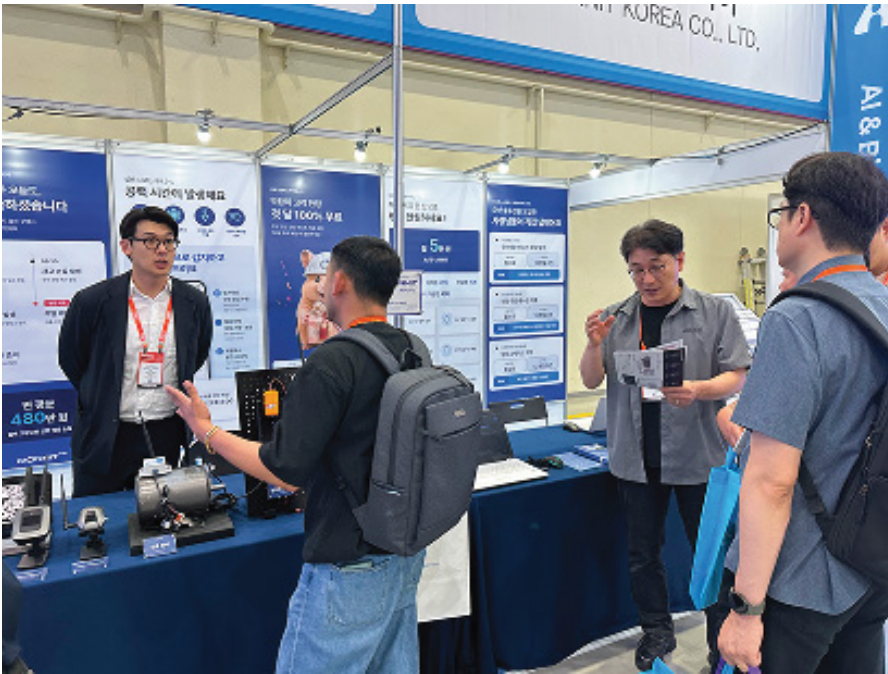
오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스마트한 여행객만을 위한 특별 기프트다. 홈페이지 예약 고객에게는 체크인 시 투숙 인원수만큼 1층에 위치한 감성 카페 '카페드빈'의 아메리카노 쿠폰을 1회 증정한다. 도심 속 비즈니스와 휴식에 싱그러운 에너지를 더하기에 제격이다.

COUPON

거제 리인스테이 호텔 | 편의점 쿠폰 증정

거제 리인스테이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마련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객실을 예약하고 투숙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여정 중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5,000원 쿠폰 1매를 증정한다. 본 프로모션은 2026년 7월 17일부터 쿠폰 소진 시까지 체크인 기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시 현장 지급된다.

COUPON



모넛코리아, 'STK 2026'서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대성황... 세안텍스 시설관리의 디지털 진화를 이끈다

모넛코리아가 국내 전문 산업 박람회인 'STK 2026'에 참가해 구독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인 '알리미 시리즈 4종'과 신규 패트를 서비스를 선보이며 산업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실제 가동 중인 모터에 정밀진동센서를 부착해 설비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연회에는 KCC, 삼성전자, 귀뚜라미 등 유수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현재 고객 맞춤형 PoC(기술검증)와 도입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입증된 모넛코리아의 독보적인 IoT 기술력은 세안텍스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시설관리 서비스의 고도화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시설관리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한 점검 횟수가 아닌, 위험을 얼마나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안텍스는 모넛코리아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기존의 인력 중심 관리를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시설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통합 관제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시설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미세한 이상 징후까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긴급 상황 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세안텍스의 독보적인 현장 운영 노하우에 모넛코리아의 디지털 기술력을 더한 상승 협력은 차원이 다른 관리의 질을 증명하며, 고객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형 시설관리 환경을 선사할 것이다.

Exhibition

사랑의 기원(Amor Ex Machina)

기간 : 2026.04.30~2026.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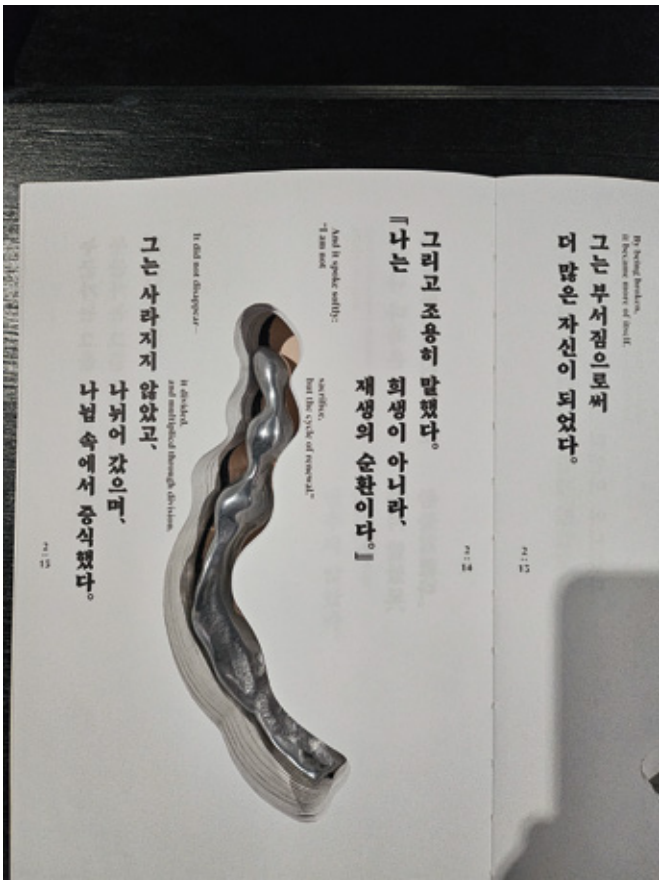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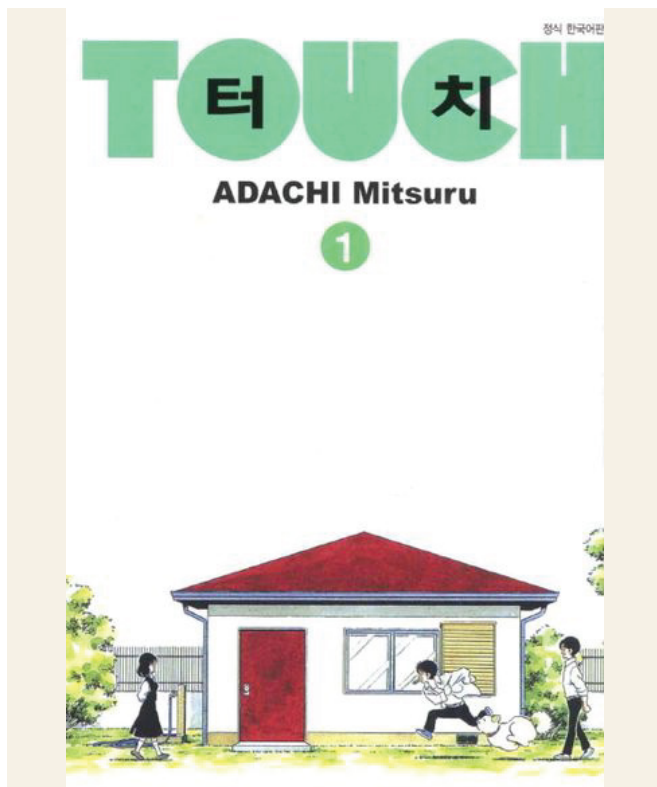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서 마주한 역사적 전환점과 사랑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사랑의 기원》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한복판으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과거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며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면, 오늘날 급격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시대'에서 '기계의 시대'로 넘어가는 또 다른 거대한 도화선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지금 그 극적인 과도기이자 문명사적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다. 대개 역사의 결정적 순간은 당대에는 인지하기 어렵고 먼 미래의 시선에서야 비로소 명확해지기 마련이다. 먼 훗날 인류는 지금 이 시기를 기계의 시대로 진입하던 가장 극적인 시간으로 기억할 것이며, 그 거대한 소용돌이 중심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묘한 짜릿함을 선사한다.

이 문명적 충격은 전시장 내부의 독특한 미학적 장치들을 통해 극대화된다. 특히 고딕 스타일과 종교적인 색채로 표현된 작품들은 중세의 엄숙함과 미래적 디스토피아를 교차시키며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안긴다. 그 엄숙함 속에서 전시가 던지는 궁극의 질문은 결국 '사랑'이다. 그동안 사랑은 인간과 기계를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전시는 그 경계를 과감히 허문다. 형태는 다를지언정 기계들만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과 기계 사이의 조화로운 결속과 사랑 또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식의 확장을 보여준다. 이 극적인 과도기 속에서 연대의 진정한 본질을 사색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강렬한 예술적 여정을 권한다.



Book



터치(Touch, タッチ)

저자 : 아다치 미츠히루

일본의 뜨거운 여름을 상징하는 것은 프로 스포츠가 아닌, 고교 야구의 성지 '고시엔(甲子園)'이다. 8월의 태양 아래 펼쳐지는 이 대회는 모든 청춘의 꿈이다. 만화 <터치>는 발매된 지 45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슬램덩크>와 함께 영원한 스포츠 만화의 명작으로 추앙받으며, 계속해서 후속작과 리메이크를 낳고 있다. 가수 윤하가 번안해 부른 애니메이션 주제곡으로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야기는 쌍둥이 형제 타츠야와 카즈야, 그리고 소꿉친구 미나미의 삼각관계로 시작된다. 천재적인 재능을 숨긴 불량한 형 타츠야와 달리, 동생 카즈야는 고시엔 진출을 꿈꾸는 모범적인 에이스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카즈야가 사망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형 타츠야는 동생의 못다 이룬 꿈과 미나미를 향한 사랑을 위해 고교 야구라는 뜨거운 용광로에 자신을 던진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주인공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준다. 뜨거운 여름날 오후, 선풍기 바람 아래 시원한 음료를 곁들이며 이 푸르른 청춘의 연대기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Movie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감독 : 구파도

찬란했던 서투름이 지금의 나에게 건네는 위로. 다만 하이틴 로맨스의 독보적인 이정표를 세운 작품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여 년이 흘러 사회인이 된 커진팅이 첫사랑 선자이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영화는 뜨거운 학창 시절을 소환하며 '그때 너도 날 좋아했을까?'라는 누구나 품고 있을 법한 질문을 던진다. 유쾌한 동창들의 이야기로 출발한 서사는 점차 두 주인공에게 집중된다. 영화 <라라랜드>처럼 당시의 사소한 사건들이 모여 왜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을 감성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과거부터 쌓여온 기쁨과 후회의 산물이며, 결국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성숙한 교훈을 건넨다. 비 내리는 한여름 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서툴렀던 기억이 뜻밖의 단단한 위로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호 문화 공간(도서·영화) 기고는 세안텍스 윤일진 책임님께서 소중한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뜻깊은 투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행일
2023년 7월 15일

발행처
주식회사 세안텍스

홈페이지
www.seantecs.co.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80

